

# “KIA 부진 탈출, 내 손에 달렸다”



## 류현진, 내일 2승 도전

SF 에이스 범가너와 선발 맞대결

개막전에서 뛰어난 투구를 펼친 류현진(32·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이 시즌 2승에 도전한다.

류현진은 3일 오전 11시 1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홈경기에 선발 등판한다.

류현진에 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그는 지난달 29일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 정규 시즌 개막전에 선발 등판해 6이닝 1실점으로 승리투수가 됐다.

직구 최고 구속은 시속 153km를 찍었고, 삼진은 8개나 잡았다. 무엇보다 볼넷을 단 한 개도 내주지 않았다는 게 의미 있다.

류현진은 5차례 시범경기를 포함해 올해 던진 6차례 실전 경기에서 단 한 개의 4구도 허락하지 않았다.

류현진은 지난해 샌프란시스코를 상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다. 피안타율은 0.185에 불과했다.

브랜던 벨트(0.200), 조 패닉(0.167·이상 상대타율) 등 대다수 주력 선수에게 강한 면모를 보였다.

류현진은 유일하게 브랜던 크로퍼드에게 약한 모습을 보였다. 지난 시즌 홈런 1개를 포함해 5타수 3안타 볼넷 1개로 부진했다.

상대 팀 선발로 예고된 선수는 2014년 월드시리즈 최우수선수(MVP)상을 받은 매디슨 범가너(30)다.

류현진은 범가너와 인연이 깊다. 지난 2013년 4월 메이저리그 데뷔전에서 범가너를 상대 투수로 처음 만났다.

이후 류현진은 범가너와 총 7차례 맞대결을 펼쳤는데, 류현진은 2승 3패 평균자책점 1.98을 기록했고 범가너는 3승 3패 평균자책점 1.53으로 호투하며 치열한 승부를 펼쳤다.

범가너는 2011년부터 6시즌 연속 두 자릿수 승수를 올린 뒤 최근 2시즌엔 각각 4승 9패와 6승 7패로 주춤했다.

그러나 최근 두 시즌 동안 모두 3점대 평균자책점을 기록하며 경기 내용에선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

시즌 첫 출전이었던 지난달 29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경기에서도 7이닝 2실점으로 호투했다. 타선이 침묵하면서 패전투수가 됐지만,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

범가너는 전론 타자 못지않게 뛰어난 타격 실력을 갖춘 투수로도 유명하다. 류현진이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연합뉴스

## T 타이거즈 전망대

윌랜드, 이번주 삼성 원정·홈서 키움과 6연전 2경기 등판  
개막 후 3승 5패 6위...선발진 부진에 타선 집중력도 떨어져  
극심한 타격 부진...나지완·최원준 살아나야 4월의 질주 가능

조 윌랜드가 KIA 타이거즈 선발진 안정의 중심에 선다.

지난주 한화 이글스, KT 위즈와의 맞대결에서 3승 3패를 기록한 KIA는 윌랜드를 앞세워 대구로 간다.

KIA는 2일부터 삼성 라이온즈와의 원정 3연전을 치른 뒤 안방으로 돌아와 키움 히어로즈와 주말 3연전 대결을 벌인다.

KIA, 삼성, 키움은 개막 후 8경기에서 3승 5패를 기록하면서 나란히 공동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초반 흐름이 마음과 같지 않은 팀들의 맞대결이다

윌랜드가 KIA의 한 주 성적을 좌우한다.

윌랜드는 KIA의 2019시즌 첫 승리투수이자 유일한 선발승 주인공이다.

첫 등판에서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패전 투수가 됐던 양현종은 지난 29일 두 번째 등판에서는 KT 타자들에게 홈런 하나 포함 12안타를 얻어맞으면서 2패째를 기록했다.

5이닝 8실점(7자책점)으로 혹독한 신고식을 치렀던 터너 역시 두 번째 등판에서도 패전 투수가 됐다. 5이닝 2실점으로 첫 등판보다는 좋은 기록을 썼지만 매서움과 이닝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첫 등판에서 4이닝 8실점으로 부진했던 임기

영은 예정됐던 두 번째 등판은 소화하지 못했다. 옆구리 통증으로 엔트리에서 말소되면서 황인준이 대체 선발로 출격했다.

KIA의 5패가 모두 선발 투수들에게 주어졌고, 선발진의 평균자책점은 6.53으로 10개 팀 중 최하위다.

선발진의 이닝도 아쉽다. 대체 선발 황인준이 4.1이닝을 소화한 지난 31일 경기를 제외한 7경기에서 선발진은 37이닝을 책임졌다. 평균 5이닝을 조금 넘어서는 수치다.

선발진의 부진은 팀 성적은 물론 KIA의 희망으로 떠오른 '젊은 불펜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선 31일 경기에서 스윙패를 막기 위해 불펜의 핵심 하준영과 마무리 김윤동이 각각 1.2이닝 2이닝을 소화해야 했다. 아직은 시즌 초반이라 여파가 크지 않지만 불펜진의 과부하는 팀 전체적인 전력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 주를 여는 윌랜드는 정상적인 로테이션으로는 오는 7일까지 두 경기를 책임져야 한다. 승리와 이닝을 동시에 이끌어야 하는 윌랜드다.

타석에서는 최원준과 나지완의 반전이 필요하다.

이범호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최원준은 3루에



나지완

서서 마음껏 실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수비는 성장세를 보였지만 기대했던 공격에서는 제 실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원준은 개막 후 8경기에서 32타석에 섰지만 4개의 안타를 수확하는데 그쳤다. 볼넷 5개를 골라냈지만 삼진도 8개를 기록했다.

주로 지명타자로 나서고 있는 나지완의 부진도 눈에 띈다.

나지완은 3월 28일 마수결이포를 쏘아 올리며 통산 200홈런에 하나를 남겨두고 있다. 31일



최원준

에는 희생플라이로 결승타도 기록했지만 타율이 0.192에 머물고 있다. 무엇보다 9차례 삼진으로 몰리면서 아쉬움을 사고 있다.

타선의 떨어진 집중력도 선발진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최원준과 나지완의 세밀함이 필요하다.

팀의 첫 승을 장식했던 윌랜드가 다시 한번 승리투수가 되어 KIA의 4월 질주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코리안 시스터즈’ 첫 대결은 무승부

지소연 - 조소현,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 첼시 vs 웨스트햄 1-1

한국 여자축구대표팀의 에이스 지소연(28·첼시 레이디스)과 ‘캡틴’ 조소현(31·웨스트햄)이 영국 무대 진출 후 처음으로 한국인 선수 맞대결을 벌였다.

지소연과 조소현은 1일 영국 런던 인근 킹스톤의 체리레코즈 팬즈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19시즌 잉글랜드 여자슈퍼리그(WSL) 19라운드 경기에서 나란히 선발로 출전했다.

지소연의 소속팀 첼시의 홈경기로 치러진 이날 경기에서 지소연은 62분을 뛰었고, 조소현은 경기가 끝날 때까지 풀타임으로 그라운드를 누볐다.

한국 여자대표팀의 주축인 지소연과 조소현이 맞대결을 벌인 건 프로 데뷔 후 처음이다.

지소연은 한양여대를 거쳐 2010년 12월 일본 고베 아이나에 입단했고, 2014년 1월 잉글랜드 첼시로 옮겨 지금까지 뛰고 있다.

2010년 인천 현대제철 유니폼을 입고 프로에 입문한 조소현은 작년 노르웨이 리그의 아발드스네스

에서 뛰던 후 올해 1월 잉글랜드 웨스트햄에 입단했다.

작년 11월 5일 웨스트햄 안방에서 열린 첼시와 맞대결 때는 조소현이 입단 전이었고, 첼시가 적지에서 2-0으로 이겼다.

둘은 나란히 귀국해 지난달 30일 파주 축구대표팀 트레이닝센터(NFC)에 소집된 여자대표팀에 합류해 6일과 9일 열리는 2연전으로 치러지는 아이슬란드와 평가전에 참가한다.

지소연과 조소현의 맞대결에서 양팀이 공방 끝에 1-1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지소연과 조소현은 나란히 중앙 미드필드로 선발 출격해 공격과 수비를 연결하며 경기를 조율했다.

첼시가 전반 42분 베서니 잉글랜드의 선제골로 앞서갔고, 지소연은 후반 17분 임무를 마치고 아델리나 영만으로 교체됐다. 웨스트햄이 후반 20분 질리 플래허티의 동점골로 1-1 균형을 맞춰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다.

/연합뉴스



첼시의 지소연이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상대 공격을 막아내고 있다. <첼시 레이디스 홈페이지 캡처>

## 강정호, 장타 공장 가동

피츠버그 3루수 선발...시즌 첫 2루타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32)가 올 시즌 첫 2루타를 생산했다.

강정호는 1일 열린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 원정경기에서 6번 타자 3루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 1안타 1볼넷 1삼진을 기록했다.

개막전에 이어 2경기 연속 안타를 만들어낸 강정호의 시즌 타율은 0.333에서 0.286(7타수 2안타)으로 소폭 하락했다.

그는 1회초 2사 1,2루 기회에서 첫 타석에 들어섰다.

상대 선발 소니 그레이와 맞선 강정호는 풀카운트에서 친공이 유격수 땅볼로 연결되면서 아웃됐다.

강정호는 2-0으로 앞선 3회초에 두 번째 타석에서 볼 4개를 내리 골라 볼넷으로 출루했다. 후속 타선의 불발로 득점을 기록하지 못했다.

5회초 세 번째 타석에선 바뀐 투수 마이클 로렌젠을 상대로 중견수 뜬 공으로 물러났고, 선두타자로 나선 7회초엔 로버트 스티븐슨에게 삼진으로 잡혔다.

안타는 5-0으로 앞선 9회초 마지막 공격에서 나왔다.

1사에서 자레드 휴스를 상대로 볼카운트 2볼-2스트라이크에서 낮은 싱킹패스트볼을 받아쳐 좌익선상 2루타를 만들었다.

피츠버그는 5-0으로 승리했다.

/연합뉴스